

쌀 변동직불금 못받나, 농민들 '한숨'

사상 초유의 우선직불금 환수에 이어 허용보조 내에서조차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높아만 지고 있다.

변동직불금은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산지 평균 쌀값이 정부가 정해놓은 목표가격인 18만 8000원 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용한 허용보조(AMS)내 쌀변동직불금 지급 가능액은 1조4900억원이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80kg 기준으로 최소 13만4111원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산지 쌀값 상황으로는 이를 충족시키기 불가능해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통계청이 조사한 산지 쌀값은 80kg 기준으로 평균 12만9807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쌀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쌀 소득보전금액

산지 쌀값, 80kg 기준 최소 13만4111원 넘어야 통계청 조사결과 산지 쌀값 평균 '12만9807원'

은 80kg 기준으로 17만9,362원 이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가 추정한대로 산지 쌀값이 13만4111원일때 변동직불금 규모는 3만3078원으로 고정직불금 1만5873원 가량을 포함해 최종 농가 수취가격은 17만9,362원이다.

이 경우 목표가격 18만8,000원 대비 보전율은 95.4%이다. 만약 산지 쌀값 평균치가 13만4111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전율은 더 하락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2월부터 산지 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할인판매 중단 요구와 함께 산지 RPC들에 대해 저가방출 자제를 주문하는 등 다각적인 산지쌀값 지지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예상만큼 쌀값이 오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쌀값이 80kg당 14만원대인 경우를 기준으로 변동직불금 예산안을 9,777억원을 잡았지만, 쌀값이 계속 하락하자 5,123억원이나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만약 현재 가격이 이달까지 계속되면 1조4,900억원으로도 변동직불금은 11억원가량 모자라게 된다. 현행법상 직불금 지급 총액은 WTO 보조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지난 10월부터 1월까지의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액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농민회 관계자는 "지금 추세로 쌀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변동직

불금 규모가 확보해둔 예산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해 변동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조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농식품부의 정확한 쌀값 예측 판단 미비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쌀생산자협회 박흥식 전북본부장은 "산지 쌀값의 안정을 위해 농민 관계자들이 100만톤의 추가격리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68만5,000톤에 대해서만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 조치를 취했다"며 "정부가 쌀값 떨어지는 원인을 농민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로 농민들의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속시원한 대책하나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급이라도 정부가 특별예산을 편성해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지방세, 어떻게 달라지나

관계법 4법 체계로 개편... 승합·화물차 취득세 감면

전북도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2017년 지방세제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관계법이 기존 3법에서 4법 체계로 개편된다.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 다양한 분야가 혼재돼 있어 납세자들의 접근과 이해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돼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채납처분 분야를 분리해 지방세징수법을 독립 법제화 시킨 것이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차로 승합·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나 감면기간은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 기간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감면이 적용된다.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감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축시 기존 취득세·재산세 10%감면이 50%로, 대수선시는 50% 감면에서 100% 감면으로 감면율이 확대됐다.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도 2019년 12월 말까지로 3년 연장됐다.

국세청 동시신고란 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고자 세무서 소득세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 밖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 자동이체납부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소멸·멸실이 확인될 경우 비과세 조치되고, 외국인에 대한 개인등분 주민세 과세요건도 기존에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됨 경우 대상이었던 것이 1년이 경과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 확대, 수소차 취득세 200만 원 공제 신설등 납세자를 위한 세부담 완화 세제개선이 이뤄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 및 연관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플랫폼과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자동차융합기술원, 비전선포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 및 연관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올해 비전은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R&D·기술사업화'를 구현할 글로벌 통합 플랫폼'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창

의적 역량을 발휘해 융복합 연구개발, 기술서비스 제공 및 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자동차 및 연관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상호 협력으로 비전 달성을 위해 미래형 자동차글로벌 전진기지 기반조성, 기술사업화 기반 융복합 R&D 수행, 부품기업 동반성장 플랫폼 구현, 창의적 경영역량 및 협업 강화 등 4대 추진 목표와 21개의 세부사업을 정하고 이

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성수 원장은 "15년의 역사와 규모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비전을 새롭게 제시했다"며 "특히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플랫폼과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예타기획에 전력을 다하고, 자동차와 연관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직원이 합심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임실치즈·필봉농악 체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임실치즈 및 필봉농악 체험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학생들은 물론 각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농업진흥청은 지난 29일 임실군의 특산물인 치즈와 인류무형유산 중요 무형문화재인 필봉농악 체험을 중심으로 한 여행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다고 5일 밝혔다.

/안재용 기자

중진공 전북본부, 동남아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전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동남아시아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 무역사절단 파견기업을 1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무역사절단 참가대상은 전북도내 소재 수출중소기업으로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양국, 싱가포르, 마닐라를 방문해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와의 미팅을 통한 시장개척 기회를 갖는다.

파견규모는 10개 기업 내외이며, 참가기업은 현지 코트라 무역관의 사전 시장성 검토 등을 거쳐 현지진출 유망기업을 선정해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6일부터 전북도 수출지원관리시스템(<http://jtrade.jonbuk.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

전북중기청, 우수 중소기업개발 지원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력을 통한 공생발전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 시행된다.

전북중소기업청은 해외기업,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를 전제로 한 신제품 개발과 국산화가 필요한 시장지향형 개발과제를 모집한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세부과제는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및 민간 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이 있으며 지원 조건은 국·내외 수요처기술개발과제의 경우 기술개발비의 65%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민간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총 기술개발비의 75%범위 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되며, 중소

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수요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제품을 구매해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이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가능성, 수입대체 효과 등을 고려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연초부터 매달 접수하며, 수시평가(2개월 단위)로 우수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자격,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을 참조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63-210-6451)로 문의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